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동해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전임강사 임연진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hae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Yonjin L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peer competence with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irty boys and thirty-one girls in 3 to 6 years of age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Mothers responded to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Hwang, 1997), and teachers rated each child using Peer Competence Scale(Park & Rhee, 2001) and Emotional Intelligence Scale(Lee, 1997). Mothers' acceptive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abilities to regulate emo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peer competenc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rather than mothers' parenting styles predicted peer competence.

주제어(Key Words): 아동의 또래 유능성(children's peer competence), 어머니의 양육태도(maternal parenting styles),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 서론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에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후의 삶에서 학교중퇴, 비행, 범죄, 자살 등 여러가지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Parker & Asher, 1987; Roff, Sells, & Golden,

1972).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가출 등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부적응과 정신건강 문제 등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또래집단에 수용되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

아동이 또래집단에서 수용되려면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또래 유능성이라 하는데, 이는 여러 아동과 잘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사고성, 또래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친사회성, 또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주도성 등과 같은 효율적인 기능을 의미한다(박주희, 2000).

또래 유능성은 외적 환경 요인과 아동의 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적 환경 요인 중 가족은 아동이 접하는 최초의 사회적 맥락이므로 또래 유능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Fishbein와 Aizen(1975)에 의하면,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방식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이다(황혜정, 1997,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한 노력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Baumrind(1967)의 고전적인 양육태도 분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Baumrind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성과 통제 정도에 따라 민주적(authoritative), 권위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양육태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Rohner와 Rohner(1981)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186개 사회에서 부모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수용과 거부가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 행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원임을 밝혔다. 수용적인 부모는 언어나 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유형인 반면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불만을 나타내며 화를 자주 내는 유형을 말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가 온정성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통제를 할 경우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서,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민주적 부모의 자녀는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경향이 있었다. 반면 권위적인 부모의 자녀는 적대적이고 책임감만 높은 경향이 있었고,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부족하며 책임감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후속연구(Baumrind, 1977)에서는 민주적인 부모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보고하였다(Putallaz & Heflin, 1990, 재인용). 즉 민주적인 부모의 자녀는 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집단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며 또래 상호작용에서 편안하고 뛰어난 경향이 있었다.

다른 연구들도 이와 일관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Hinde와 Tamplin(1983)은 온정성이 낮고 엄격하게 금지를 하는 권위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에게 우호적이지 못하고 적대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온정적이고 적절한 통제를 하는 민주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Rohner(1991)는 부모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경우 그 자녀는 다른 사람이나 또래에 대한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고 성인에게 비협조적이며 적대감을 표현한다고 보고하였다(황혜정, 1997, 재인용). 또한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수용과 애정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고(Brody & Shaffer, 1982; Hoffman, 1963, 1975; Jensen, Peery, Adams, & Gaynard, 1981), 어머니의 반응성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다(Bakeman & Brown, 1980; Bryant & Crockenberg, 1980)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래 유능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온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간에 이와 같은 관련성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부모가 적절한 정도의 통제로 아동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 아동은 자신의 욕구에 덜 몰두하게 되어 타인에게 보다 반응적일 수 있다. 더우기 이러한 경우 아동은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그 결과 아동이 획득한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온정성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모델이 되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또래 유능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Brody & Shaffer, 1982; Bryant & Crockerberg, 1980; Hoffman, 1963, 1975).

이와 같이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는 또래에게 우호적이고 집단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또래 유능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또래 유능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동의 내적 특성으로는 사회인지 능력(이미순, 1995; Mize & Ladd, 1988), 사회적 행동 특성(임연진, 이은혜, 2000),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Katz & McClellan, 1997)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사회인지 능력은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Shantz, 1983), 예컨대 몹시 화가 났을 때는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처럼, 불안, 공포, 분노 등의 정서적 요인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또래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Dodge, 1991).

정서조절이란 내적 감정 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이다(Thompson, 1994). 또한 정서조절은 필요할 경우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 경험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le, Michel, & Teti, 1994). Calkins(1994)는 정서조절이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책략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대인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서 조절은 자아 속에서의 정서 조절과 타인의 정서의 조절을 포함한다. 자아 속에서의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은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정서의 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과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갖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문용린, 1996).

아동이 정서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아동에 대한 타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를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노를 다루는 아동에 비해 또래에게 덜 인기있는 경향이 있고, 성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Eisenberg & Fabes, 1992).

정서조절과 아동의 또래지위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조절 능력과 긍정적인 또래지위간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거부된 아동, 특히 거부된 남아는 보통 지위의 아동에 비해 더 공격적인 반면 인기아는 다른 지위 아동에 비해 덜 공격적이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기아와 보통 지위의 아동이 거부된 아동에 비해 분노 감정의 통제를 더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ie와 Dodge(1988)도 거부된 아동이 인기아나 보통 지위 아동에 비해 더 자주 화를 내는 경향이 있고, 또래 인기도와 화내는 빈도간에 부적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더 인기 있는 남아는 자신을 화나게 하는 아동들에게 공격적 행동 대신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또래 관계에서 유능한 아동들은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자기 주장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므로써 분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숙치 않은 놀이 집단에 대한 관찰 연구(Hubbard, Coie, & Dodge, 1993)에서도 또래 유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는 증거가 발견된다(Hubbard & Coie, 1994, 재인용). 즉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인기아와 보통 지위 남아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인기 있는 남아의 놀이 행동은 집단의 공격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지위의 남아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경우 더 많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기 있는 남아는 보통 지위 남아에 비해 분노를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자신의 내적 반응을 더 잘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기 있는 남아의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은 자극을 경험 하더라도 공격성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보였던 행동과 유사한 수준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동일한 연구(Hubbard와 그의 동료들, 1993)에서 인기아와 보통 지위 남아의 놀이 전환을 비교한 결과, 인기있는 남아는 보통 지위의 남아에 비해 거친 씨름놀이에서 대화나 구성놀이 같은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놀이로의 전환을 더 잘 할 수 있었다(Hubbard & Coie, 1994, 재인용). 반면 보통 지위의 남아는 거친 씨름 놀이에서 고립된 상태로 전환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분노와 흥분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거친 씨름 놀이 상황에서도 인기있는 남아는 자신의 분노와 흥분 정서를 놀이 파트너와 함께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Gottman과 Mettetal(1986)도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고조된 놀이를 할 동안에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또래 수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또래에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성 같은 행동으로 표출하는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은 또래 유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 중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또래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국내 대부분의 연구들은 Baumrind(1967)의 양육태도 유형을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수용과 거부의 두 차원을 양육태도로 설정하여 조사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또래지위나 인기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고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한편 또래 유능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박주희, 2000)가 있는데, 이는 반복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 유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또래 유능성이 이들 변인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또래 유능성의 발달 경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1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 6세 아동 61명과 그 어머니이다. 대상 아동은 남아가 30명, 여아가 31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3세가 15명, 4세 16명, 5세 16명, 6세 14명으로 평균 연령은 4.48이고 표준편차는 1.10이었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막내 32.8%(20명), 첫째 29.5%(18명), 외동아이 14.8%(9명), 중간 1.6%(1명)로 나타났고, 무응답이 21.3%(13명)였다.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우 중졸이하 6.5%(4명), 고졸 26.2%(16명),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1.5%(7명), 대졸 이상 36.1%(22명), 무응답 19.7%(12명)이었다. 아버지는 중졸이하가 1.6%(1명), 고졸 26.2%(16명),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6.6%(4명), 대졸 이상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성과 연령별 분포 (N=61)

성	연 령				계
	3세	4세	5세	6세	
남	7(11.5)	7(11.5)	8(13.1)	8(13.1)	30(49.2)
여	8(13.1)	9(14.8)	8(13.1)	6(9.8)	31(50.8)
계	15(24.6)	16(26.2)	16(26.2)	14(23.0)	61(100)

() 안은 백분율

44.3%(27명), 무응답 21.3%(13명)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22.6%(14명)이었고 그 다음이 전문직 19.4%(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이 24.2%(15명)이고 판매 서비스직 21%(13명)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질문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 (1984)의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황혜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크게 수용과 거부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온정/애정 차원은 수용을 나타내며,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구별되지 않는 거부의 세 차원은 거부를 나타낸다. 하위척도별 문항수는 온정/애정 영역 20문항, 공격성/적대감 영역 15문항, 무시/무관심 영역 15문항, 구별되지 않는 거부 영역 10문항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애정은 '나는 우리 아이에게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공격성/적대감은 '나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아이를 겁주거나 위협한다', 무시/무관심은 '나는 바빠서 우리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구별되지 않는 거부 영역은 '우리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된다'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에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에 따라 어머니용, 아동용, 성인용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용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수용 .85, 거부 .89, 전체 .84였다.

2) 정서조절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alovey와 Mayer(1990, 1996), Goleman(1995), Saarni

(1990)의 연구를 토대로 이병래(1997)가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의 4개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의 2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서조절이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선행연구들(문용린, 1996; Salovey, 1996)에 기초한 것이다. 자기조절 영역은 8문항, 타인조절 영역은 9문항으로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조절 영역에는 '게임에서 졌을 때 화내지 않고 결과를 수용한다', 타인조절 영역에는 '친한 친구가 슬피하고 있을 때 위로할 줄 안다'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을 통합하여 정서조절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가 대상 아동을 각 문항별로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7점에서 85점 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α 계수는 .85였다.

3) 또래 유능성 척도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세 개 하위요인별로 5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 문항의 예를 들면 사교성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친사회성에는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잘 도와준다', 주도성에는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교사로 하여금 대상 아동의 특성을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하위영역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사교성 .91, 친사회성 .77, 주도성 .90, 전체 .92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 자료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 질문지는 가정 통신문과 함께 각 아동의 가정에 배부되었고 83%가 회수되었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은 담당 교사에게 학습의 모든 아동에 대한 일상적 행동 관찰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질문지가 회수된 아동의 자료만이 포함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 결과는 SPSS 7.5 윈도우용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아동의 또래 유능성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래 유능성 점수를 연령에 따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수용, 거부 두 하위영역 점수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점수, 또래 유능성 점수간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으로 또래 유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령에 따른 아동의 또래 유능성

또래 유능성에서의 성차에 관한 예비분석 결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또래 유능성에서의 연령 차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 유능성 척도의 세 하위영역 점수들과 그 평균 점수에 대해 연령에 따른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또래 유능성 점수의 평

〈표 2〉 또래 유능성 점수의 연령별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N=61)

하위영역	연령				F
	3세 (n=15)	4세 (n=16)	5세 (n=16)	6세 (n=14)	
사교성	12.67 ^a (3.08)	15.50 ^b (1.99)	15.45 ^b (3.97)	17.50 ^b (5.32)	3.38*
친사회성	14.33 (2.39)	16.95 (2.33)	16.55 (3.98)	17.38 (2.92)	2.31
주도성	12.17 ^a (2.82)	17.00 ^b (3.06)	14.65 ^b (4.76)	17.63 ^b (4.57)	5.04**
전체 평균	13.06 ^a (2.50)	16.48 ^b (2.04)	15.55 ^b (3.51)	17.50 ^b (3.54)	4.86**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a, b Duncan 검증 결과 유의한 차가 나타난 집단임

균, 표준편차, 그리고 F값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의 주효과는 친사회성 영역을 제외한 두 영역과 전체 평균 점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성과 주도성, 그리고 전체 평균에서 모두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연령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교성, 주도성, 전체 평균 점수에서 일관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즉 3세는 4, 5, 6세에 비해 사교성, 주도성, 또래 유능성 평균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그리고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는 수용과 거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수용 영역 점수는 온정/애정 차원 점수를 나타내며, 거부 영역 점수는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구별되지 않는 거부의 세 차원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의 수용, 거부 두 하위영역 점수와 아동의 정서조절 및 또래 유능성

〈표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부분상관계수 (N=61)

	어머니의 양육태도		정서조절	또래 유능성
	수용	거부		
어머니의 양육태도 수용	-			
거부	-0.19	-		
정서조절	.24	.01	-	
또래 유능성	.34*	-.04	.65***	-

* p<.05 *** p<.001

척도 점수간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수용 차원 점수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 점수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유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점수와 또래 유능성 점수간에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록 또래 관계에서도 유능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정서조절을 잘하는 아동일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 유능성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아동의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회귀분석에 먼저 투입되었고, 어머니 양육태도의 수용과 거부,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 변인은 동시에 투입되었다. 또래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수용 및 거부와 아동의 정서조절 변인이 또래 유능성 전체 변량의 약 4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중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beta = .59$)만이 또래 유능성을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즉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은 정적 관계로서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 또래 유능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명	1단계	2단계
	β	β
연령	.24	.21
어머니의 양육태도 수용		.19
거부		-.01
정서조절		.59***
R ² 증가량		.44***
전체 R ²	.06	.49
전체 F		9.40***

*** p<.001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수용적이든 거부적이든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또래 유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수용 및 거부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으로 구성된 회귀분석모델이 또래 유능성의 상당 부분(44%)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 유능성을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유능성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래 유능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으로 또래 유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 5, 6세 아동은 3세 아동에 비해 사교성, 주도성, 그리고 또래 유능성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3세와 그 이후 연령 아동간의 발달적 차이를 변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arten(1932)의 놀이 형태에 따르면, 2-3세

아동의 경우 주로 방관자적 행동이나 혼자놀이가 지배적이며, 4-5세에는 이러한 놀이가 부분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송명자, 1995, 재인용). 이것은 3-4세 혼합연령 집단의 자유놀이를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즉 3세는 또래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래의 놀이를 관찰하기만 하는 방관자적인 놀이 형태를 보이는 반면, 4세는 3세에 비해 놀이 규칙을 좀 더 이해하고 또래와의 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4-6세 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지적(Bar-Tal, Raviv, & Goldberg, 1982; Green & Schneider, 1974)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 유능성에서의 연령차는 3세와 4세 이후 아동간 이러한 발달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가 온정적이며 애정적일수록, 그리고 아동이 정서를 잘 조절할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온정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견해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Putallaz & Heflin, 1990).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온정성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Brody & Shaffer, 1982; Hoffman, 1975)는 연구와,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아동의 자율성을 격려해줄수록 아동의 또래 유능성이 높다는 연구(박주희, 2000), 부모의 온정성과 긍정적인 또래지위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Dekovic & Janssens, 1992)와 일관된 것이다.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간 정적 관계가 나타난 이유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양육행동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모델링과 반응 유발로 설명될 수 있다(Ladd, 1992). 첫째, 모델링은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모델로 삼아 이를 모방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Putallaz(1987)는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그 자녀도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공격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공격적 행동의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반응유발이란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게 상보적 혹은 방어적 행동을 유발하고, 이렇게 유발된 행동은 또래 상호작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거부적인 부모들은 아동에게 분노와 좌절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아동은 또래에게도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Ladd, 1992).

한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 정적 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Putallaz(1983)는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보이고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이 또래와 더 잘 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Mize & Pettit, 인쇄중, 재인용). 또한 Eisenberg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사교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하였다(Eisenberg & Fabes, 1992).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과잉 각성된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조절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하게 되어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Hoffman, 1982). 또한 과도한 정서를 경험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아동은 주의를 집중과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어 행동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Parke, Cassidy, Burks, Carson, & Boyum, 1992).

한편, 본 연구 결과는 상관관계에 기초하므로 역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유능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온정적이고 애정적이라는 해석도 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또래 관계에서 유능한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 같은 바람직한 행동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온정과 애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Parke, Cassidy, Burks, Carson, & Boyum, 1992). 또한 또래 유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조절을 잘 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단 또래집단에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면 지위가 그 아동에 대한 또래의 반응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또래 지위가 낮은 아동은 또래들이 그 아동을 좋지 않게 대하므로 매우 적대적이 되고 비조절적이 될 수 있

다(Maszk, Eisenberg, & Guthrie, 1999).

세째, 어머니 양육태도의 수용 및 거부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으로 구성된 회귀분석 모델이 또래 유능성의 44%를 설명해주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 유능성을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5개월 이후의 사회적 지위를 예측한다는 연구(Maszk, Eisenberg, & Guthrie, 1999)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또래 유능성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으로 구성된 회귀분석 모델이 또래 유능성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또래 유능성간에 정적 상관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 자신의 내적 특성 변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비해 또래 관계와 좀 더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아동이 또래와의 놀이 중 분노나 흥분 같은 강렬한 정서를 조절할 수 없고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놀이를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또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szk, Eisenberg, & Guthrie, 1999).

다른 가능성은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 모두 교사가 평정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 유능성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후 연구에서 또래 유능성 평가시 교사 뿐 아니라 또래의 평정도 포함함으로써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노 통제 프로그램'(Lochman, White, Wayland, 1991) 같은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지 못한 아동을 이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또래 유능성 증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

니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도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지 못한 아동을 돕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본 연구결과로 3세 아동이 4-6세 아동보다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단정짓는데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더 큰 표집을 이용하여 반복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또래 유능성 평가시 또래의 평정을 포함하지 못하고 교사 평정만 실시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 유능성을 또래와 교사 모두에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내적 능력과 외적 환경 변인을 동시에 탐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즉 4, 5, 6세 아동은 3세 아동보다 또래 관계에서 유능한 경향이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정서조절을 잘 하는 아동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다. 세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또래 유능성을 유의하게 설명해준다.

■ 참고문헌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 자료), 59-89.
-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 이은혜(2001). 취학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미순(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논문.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진, 이은혜(2000).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8(1), 9-23.
-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Bakeman, R. & Brown, J. V. (1980). Early interaction: Consequences for social and mental development a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51, 437-447.
- Bar-Tal, D., Raviv, A., & Goldberg, M. (1982). Helping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An observa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3, 396-402.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1977, March). *Socialization determinants of personal agenc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Brody, G. H. & Shaffer, D. R. (1982). Contributions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 31-75.
- Bryant, B. K. & Crockenberg, S. B. (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Calkins, S. D. (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9, nos. 2-3, serial no. 24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Coie, J. D. & Dodge, K. A. (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P. M., Michel, M. & Teti, L. O'Donnell.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9, nos. 2-3, serial no. 24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Dekovic, M. & Janssens, J. M. A.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odge, K. A. (1991).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 14). Newbury Park, CA: Sage.
- Fishbein, M. & Aizen, I. B. (1975). *Attitude intention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 Mettetal, G. (1986). Speculations about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through

- adolescence. In J. M. Gottman & J. G. Parker (Eds.). *Conversations of friends: Speculations on affective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 F. P. & Schneider, F. W. (1974). Age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boys on three measures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 248-251.
- Hinde, R. & Tamplin, A. (1983). Relations betwee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behavior in preschool.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 231-257.
- Hoffman, M. L. (1963). Child-rearing practices and moral development: Generaliz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Child Development, 34*, 295-318.
- Hoffman, M. L. (1975). Altruistic behavior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937-943.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
- Hubbard, J. A., Coie, J. D., & Dodge, K. A. (1993). *The social behavior of popular and average status boys in a group of unfamiliar peers*. Unpublished manuscript. Durham, NC.: Duke University.
- Jensen, L., Peery, C., Adams, G., & Gaynard, L. (1981). Maternal behavior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48*, 879-884.
-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Vol. 8). Washington. D. C.: NAEYC.
- Ladd, G. W. (1992). Themes and theories: Perspectives on processe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chman, J. E., White, K. J., & Wayland, K. K. (1991). Cognitive-behavioral assessment and treatment with aggressive children. In P. C. Kendall (Ed.).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 New York: Guilford.
- Maszk, P., Eisenberg, N., & Guthrie, I. K. (1999).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status to their emotionality and regulation: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5*(3), 468-492.
- Mize, J. & Ladd, G. W. (1988). Predicting preschoolers' peer behavior and status from their interpersonal strategies: A comparison of verbal and enactive responses to hypothetical social dilemma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88-397.
- Mize, J. & Pettit, G. S. (in press). Early family experiences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Links to social, academic, and physical well-being.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 R. D., Cassidy, J., Burks, V. M., Carson, J. L., & Boyum, L. (1992). Familial contribution to peer competence among young children: The role of interactive and affective processe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ten, M. B. (1932). Social pa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7*, 243-269.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ff, M., Sells, S. B., & Goldman, M. M. (1972). *Soci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childre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Rev. ed.).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Assessing interrater influence in holocultural research: A methodological note. *Behavior Science Research*, 16, 341-351.
- Saarni, C. (1990). Emotional intellig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 become integrated. In Tompson, R. A.(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115-182). Lincon: Univ. of Nebraska Press.
- Salovey, P.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ay to be smart?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 3-34.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s.
- Shantz, C. U. (1983). Social cognition. In P.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NY: Wiley.
- T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pp. 25-52). *Monography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